

#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 전북개발공사, 만성지구에 공공임대주택 832여세대 공급... 내일 견본주택 개관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832여세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차인을 모집하는 '만성에코르 1단지'는 10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장 입주해도 편의 시설, 상업시설 등 이용에 불편하지 않은 전주만성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으로 구성, A형 594여세대, B형 120여세대, C형 118여세대 등 세가지 타입으로 총 832여세대를 공급한다.

만성에코르 1단지는 3가지 보증금 선택제 시행, 전용면적 84㎡형은 보증금 6,000만원~1억3,500만원 월26만 8,000원~월64만3,000원대로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2019년 11월 입주예정인 LH 전주효천 A3단지 84㎡형은 보증금 최대전환시 1억3,800만원/월24만5,000원, 2000년 4월 입주예정인 에코시티의 데시앙네스트(8BL)은 1억7,200만원/월 34만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더불어, 특별공급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에 668여세대를 분양, 일반공급은 166여세대,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 2019년 1월 21~23일, 기관추천 등 1월 28일, 일반공급은 1월 29~30일까지 청약 신청, 2월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아울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주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토지·건물 등 자산 보유, 자동차 가액 등 입주자격 요건

이 까다로운 만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에 임해야 한다. 이에, 만성에코르 1단지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전주만성지구 B-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으로 총 6개동 832호 규모로 건설, 단지 중앙부에 넓고 쾌적한 커뮤니티광장, 생태연못 조성, 주민카페, 헬스장, 에어로빅장,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설계 적용 채광에 유리, 단지내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예정, 전체 부지면적 중 38%가 녹지 면적으로 타 단지에 비해 녹지공간이 넓고, 경·중량 층격을 2등급 적용, 층간소음이 적으며 총 주차대수가 1,129대로 세대당 평균 1.36여대를

확보했다. 또한, 판상형 4Bay로 설계, 세대 내부에 현관창고,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주방 유틸리티 공간 등을 제공(타입별 상이)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130만 화소급 CCTV 무인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다.

전개공 관계자는 "올해 84㎡형 832여세대를 공급, 2021년 59㎡형 830여세대 등 만성지구에 공공임대주택 총 1,662여세대를 성공적으로 공급, 도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인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dc.co.kr) 또는 분양사무소(063-214-909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은 내일 공개, '만성에코르 1단지'의 견본주택은 덕진구 만성동 1637-3번지(현장)에 확인 가능, 입주 예정일은 2019년 9월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26일 효자동 오벨리스에서 '전북농협 통합마케팅 사업평가회'를 가졌다.

## 전북 농산물 통합마케팅 3600억원 시대 열려

### 전북농협, 추진방향 제시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평가회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6일 효자동 오벨리스에서 2018년 성과분석, 2019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북농협 통합마케팅 사업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평가회는 시, 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롯한 행정, 농협, 농업인 등 160여명이 참석, 사업현황 보고, 활성화 전략, 우수추진 사례, FTA과수산업 활성화 종합토론의 내용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통합마케팅 사업을 마무리 하며 자체평가와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전북의 통합마케팅 사업은 3,600여억원을 넘어선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지난 2012년 1,142억 원으로 1,000여억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3,180여억원, 이번 3,600여억을 달성, 연간 꾸준한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며 통합마케팅 3,600여억원 달성은 전북보다 원예사업 규모가 3배 이상 큰 경북에 이어 두 번째 달성으로 그 의미가 크다.

/김영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대비 9조 재정지원 신속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부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점과 함께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이 올해 월 190만원에서 내년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 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추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선 올해 1조 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이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 여건이 개선

되도록 지원해 지불 여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일 발표된 '자영업 혁신성장 종합 대책'까지 자영업 대책을 총 5차례에 걸쳐 발표했다고 짚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 점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제도 개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달인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하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은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며 "전문가 위원 추천

방식, 구간 범위 결정 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해서도 제도적 보완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임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이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임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 "농업인의 행복위해 최선 다할 것"

### 전주농협 모래내지점 확장 이전

전주농협 모래내지점은 1978년 2월 전주농협 18개 지사무소 중 세번째로 덕진구를 대표하는 지사무소로서 최근 전주농협 모래내지점 확장 이전 개업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농협은 사무소 설립후 40여년간

사용하던 구사무소는 지점의 사업량이나 관할 조합원수에 비해 협소하며 조합원의 편의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장 이전이 불가피하던 중 금년 7월 현재의 건물(덕진구 안덕원로 152)로 확장 이전하는 빛을 보게됐다.

모래내지점은 지난달 말 현재 예수

금과 대출금 규모가 약 1,700억원으로 전주농협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있다.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확장 이전하는 예산을 수립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금년도 비로소 확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 노력 으뜸!

###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최상위권 예산 배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전북중기청)은 올 한해 전북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원 노력,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자체 점검하는 자리에서, 여러 성과를 올렸으며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서 확대 임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성사업'은 업력 30년 이상 한우물 경영의 우수 소상공인(가업승계 포함)을 발굴, 지속 성장으로 육성,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전국 81개 백년가게가 선정, 이 중 전북은 9개가 선정(17개 시도 중 3번째)되는 높은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전북중기청은 가계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롤모델로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기 위해 12개 지방청 중 가장 먼저 전북에 선정된 '백년가게'에 대한 릴레이 현판식을 하고 집중 홍보, 지방청 수범사례로 부각됐다. 금년도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계 목소리를 청취,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애로, 건의사항 발굴,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 추진, '찾아가는 소상공인과의 소통의 날' 운영도 금년도에 30여회의 실적(해당 분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현장소통)을 나타냈다.

/김영태 기자

#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